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

교환학생 선발 이후 해외대학 측으로부터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듣길 희망하는 수업들에 대해 작성하고, 파리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와 공부에 대한 목표 등의 내용도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지원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안내 메일에 따라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자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여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과정과 각종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경험하는 해외 대학 지원 절차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한림대학교와 해외대학의 안내를 참고하여 큰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비자 및 항공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입학허가서, 여권, 증명사진, 재정 관련 서류, 보험 서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방문 예약 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심사 및 면접 후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는 약 2 주 정도가 소요되었고, 저는 출국 1 주 전에 발급받았기에, 출국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항공권은 교환학기 파견이 확정된 이후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성수기에 출국할 시에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수업 정보

파견 대학에서는 전공에 맞춘 경영 및 국제 경제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은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발표, 팀 프로젝트, 실제 기업과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른 국가 학생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EU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각과는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점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견해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단순히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과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출석 규정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기말고사 등의 시험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필요하지만, 완벽한 영어 실력이 없어도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학교에는 잘 마련된 학생 휴게 공간과 식당, 자판기 등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 공간 및 휴게 공간은 과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편리하였습니다.

건물이 8 층까지 있기에 승강기도 있지만, 교직원과 허가받은 일부 학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적 이유로 승강기 이용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등의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제교류 관련 부서에서도 교환학생들을 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 전 2 일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서 학교 정보를 안내받았으며, 프랑스의 문화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새해에 먹는 디저트인 갈레트 데 루아도 먹어보았습니다. 또한 센강 배투어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기에 즐겁게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교환학생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파리에서의 생활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시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박물관과 관광지를 힘들지 않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대중교통은 1 회 이용 요금이 2 유로가 넘기 때문에, 파견 기간에 따라 Île de France 교통카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랑스의 카페 문화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에스프레소는 "Un express, s'il vous plait.", 일반 커피 한잔은 "Un café allongé, s'il vous plait." 하고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Studapart 같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검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파리의 물가가 비싼 만큼 월세도 비싼 편이기에, 위치와 편의성, 가격을 잘 고려하여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방 하나 월세로 690 유로를 냈었고, 8 명이서 함께 사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찾을 수 있었던 비교적 저렴한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국제 학생들에게도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CAF 를 검색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진행하시면 월세와 집의 크기, 룸메이트 유무 등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 중 하나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과 친해져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바비큐를 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환학생 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는 워낙 많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근처의 베르사유 궁전, 에펠 탑, 몽네프 다리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어딘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온라인 예매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파리에는 공항이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샤를 드 골 국제공항,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 그리고 파리 보베 공항이 있습니다. 샤를 드 골 공항은 RER B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를리 공항은 지하철 14호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리 보베 공항은 한국의 김포공항 느낌이 나는 훨씬 작은 규모의 공항으로, 저가 항공편 위주로 운영되는 공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환학기 파견 기간 동안 저가 여행을 위해서 몇 번 이용한 공항입니다.

다만 파리 외곽의 포트 마이요역으로 이동한 뒤 공항 공식 셔틀 등 버스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따라서 비용을 아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이용을 추천드리지 않는 공항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같이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국가를 여행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EU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교실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유럽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주변 국가들도 함께 여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홍보

수업과 교환학생 활동을 통해 만난 학생들에게 한림대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학교의 위치와 교육 프로그램, 교환학생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한림대학교와 춘천에 대해 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유럽이나 프랑스 관련한 정보가 나올 때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교환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들이 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사회와 문화, 경제 등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와 정치 수업에서는 예시로 한국의 영화산업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그리고 한림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6. 자기평가

교환학생 생활은 대학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이를 통해 독립심과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였기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어, 행정 절차, 생활 방식 등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 학교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